

제도에 앞서 출가-재가 초발심 회복

조계종 안정과 개혁을 위한 과제

조계종의 종단분규가 수습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이번 분규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정리하고 종단의 위상을 회복하는 일은 단순간에 매듭 지어질 수 없다. 이번 사태의 종단적 의미와 파장,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긴급 좌담을 통해 진단해 본다. 좌담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월서스님과 일면스님, 우리는 선우 공동대표 박광서교수(서강대)가 참가했다.

▲박광서 높은 참여율을 보인 가운데 제29대 총무원장 선거가 치뤄졌고 곧 새 집행부가 종단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번 종단사태가 완전히 끝났다고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수습국면이지만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조계종, 아니 불교를 바라보는 냉소적 시선들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한 일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냐'는 궁금증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월서 '출가한 남자가 이름(명예)을 구하는 것은 초가의 아인보다 못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념을 둘러싸고 대립된 것도 아니고 물질과 권력, 명예 때문에 갈등이 야기됐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종도들을 이끌어 주어야 할 자리에 있는 분들의 한 생각이 잘못되면서 이같이 엄청난 갈등이 왔던 것도 성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일면 좀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이같은 사태의 원인은 1954년 '이승만 유시'로 비롯된 정화불사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적법하지 못하게, 혹은 처절한 자기완성의 의지가 없이 출가한 분들이 지금 종단의 중진급 이상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종권 지향적 행태에 젊은 층의 현실적 이익욕구가 합쳐지면서 종단 분규의 요인들이 발생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서 나도 정화의 와중에 입산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정화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얽매어 출가자의 본분사를 잃어 버린 데 있습니다. 청담 스님을 비롯한 큰 스님들은 정화를 하면서 제도 개혁과 교육불사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했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아직도 종권과 재물의 가치를 앞세우는 세력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화 작업이야말로 종단적으로 힘 모아야 할 일입니다.

▲박광서 여러 언론들이 지적한 바 있지만, 이번 사태의 양상은 이란의 상징인 종정과 사관의 주장인 총무원장과의 갈등으로 비추어집니다. 월서스님 말씀대로 이관과 사관이 분명히 구별되지 않고 집착됨으로써 사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더 크게 인식되는 것이 분규의 씨앗이 된다고 봅니다.

▲일면 현재 조계종에는 1만2천여 스님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극히 일부가 종권과 재산 다툼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을 뿐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종단의 많은 수행자들이 출가

본분사를 놓지 않고 정진하고 있는만큼 종단은 언제나 희망적입니다.

▲월서 94년 개혁분사 이후 많은 종헌종법이 현실성 있게 정비됐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지켜졌어도 종단분규는 없어집니다.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 사찰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종헌과 종법이 정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 제도만 정착되어도 사찰의 운영, 특히 재정의 투명성은 양명해 집니다.

▲박광서 재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개선도 잘 안되는 문제입니다. 스님들의 노후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사찰의 주지를 맡았다가 그 임기가 끝나면 다시 갈 곳을 찾아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재정적인 비리가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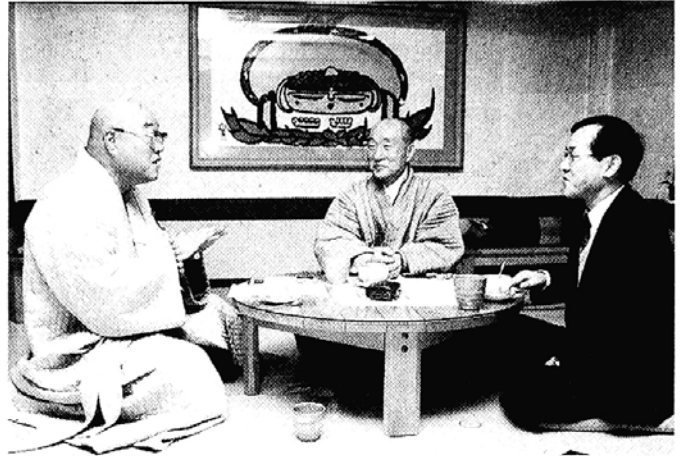
“종권·재물 탐하면 응징 문중간엔 선의의 경쟁을”

- 월서스님 -



“종법 수호 인식 필요 참회·보시로 상처치유”

- 일면스님 -



◇월서, 일면스님과 박광서교수는 좌담을 통해 조계종이 종단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천과 나누는 불교 실현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까지 가능할까요.

▲월서 아직 입법기구인 종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상하원제의 도입도 얘기됐지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논의되는 것이 공개된 창구를 통해 재가자들의 의견이 승단에 반영되는 형태, 즉 공개적인 건의 창구의 필요성인데 이는 현대불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광서 그간의 종단사태들을 점검해 보면서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았는지도 자연스럽게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종단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월서 우리 종단이 여러 문종으로 구성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일불제이지만 그렇다고 문종의 맥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종간에 발전적이고 선의적인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수행과 포교, 교육 등에 대해 서로 좋은 경쟁을 하는 가운데 문종들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찰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등을 통한 사찰과 종단의 투명화 재정운영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보다 더 급한 것은 출가대중이 초발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면 현재의 종헌종법이 일부 미비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체제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그 원인입니다. 사찰에 와서 기도카드를 잘 만드는데 종단이 권유하는 신도증 발급에는 미온적인 것이 그런 예입니다. 보다 폭넓은 홍보로 제도를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광서 종단의 많은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데 이제는 재가자들도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문제와 신도회 조직의 문제들은 재가신자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못한 것은 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있어 다행스럽습니다. 재가자들에게도 초발심 회복의 필요성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면 이번 사태로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새해부터는 '나누는 불교'를 지향해야 합니다. 스님들이 끼니를 줄여서라도 배고픈 중생을 위해 보시하고 사회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심을 해야 하는 겁니다. 베풀며 참회하는 자세를 접어 두고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모색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임연태 기자(ytlm@buddhapia.com)

참석자

월서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면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박광서 교수(서강대 물리학)

때: 1998년 12월 30일
장소: 본사 회의실

제는 이제 변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가 사이에 폭력이 난무하고 폭력배까지 동원된다는 것은 승가다운 자정의 힘이 없음을 말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4년후에는 관할을'이라는 위구심을 갖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가자 중무행정 참여 사찰재정 공개 시급”

- 박광서교수 -

생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일면 94년 개혁은 종단운영에 있어 1인의 전횡을 막았다는 성과와 법을 손질했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법들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한 겁니다. 종헌종법은 신교육을 받은 젊은 승가의 구미에 맞게 잘 짜여졌지만 운영을 근본으로 살아 온 노장스님들에게는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박광서 수행력이나 법안으로 승단이 유지되던 전통과 제도적 장치나 법적 지위로 종단이 운영되는 현실과의 충돌이라 볼 수 있겠군요.

▲월서 법과 제도가 중요하지만 승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입니다. 그 정신이 바탕이 된 곳에서 제도와 법이 지켜져야 합니다. 수행은 뒷전이고 법리는쟁이나 제도 개혁만을 외치는 것은 세속적인 충돌일 뿐입니다. 수행력을 견지할 수 있도록 종단차원에서 엄격한 재교육을 시키는 제도적 장치와 자신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채찍질하는 수행자적 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박광서 종단분규 때마다 드러나는 폭력의 문

▲일면 출가 동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부류가 있다는 점에서 승단내 폭력의 심각성은 큼니다. 사찰을 처절한 수행처로 여기기 보다는 의식주가 해결되는 곳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수계의 조건이 무척 까다로워서 그렇지 않습니다만 합동수계산립 이전에 출가한 부류 중에 '전문적인 객승'이 있습니다. 이들과 접촉을 하다보니 승단내 폭력의 가능성은 늘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광서 승단내의 폭력은 상식 이하의 행위로 이어집니다. 종단 내부적으로 보다 엄격한 벌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회법으로도 용서가 될 수 없는 것이 폭력이고 보면 재가자들이 폭력 나아가 도박상에 대해 강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로 종정이라는 권위가 훼손됐고 공권력의 투입을 이해하는 시각도 각자 다른 것 같습니다.

▲월서 이번 사태는 종정이라는 '상징성'에 상당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11월 30일 승려대의회의 결의를 존중해

서 새 집행부가 빨리 새로운 어른을 모시고 모든 종도들이 잘 받들어 모시는데서 회복의 실마리가 찾아질 수 있을 겁니다. 공권력의 문제는 법질서 존중의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했듯 이번 사태가 교리나 이념의 논쟁이 아니라 폭력을 동반한 사회문제로 비화했기 때문입니다.

▲일면 이번 사태에서 유독 성찰스님이 많이 거론됐습니다. 그분께서 종정의 지위를 확고히 세우셨고 이관의 본분을 잘 보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권력 투입은 우리 스스로가 환부를 드러낸 일이었습니다.

▲박광서 종단에 의견이 대립될 경우 이를 중재할 세력이 없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대두됐습니다.

▲일면 따지고보면 그런 세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종단의 어른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조정기능의 세력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 세력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박광서 재가자들의 중무행정 참여는 어느 선

佛紀 2543年(己卯年) 謹·賀·新·年

시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동국에 오면 마음이 열리고
동국을 나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개교 100년의 역사와 전통의 힘을 동력으로,
15만 동국인의 민족, 사회발전을 향한 소명의식과
동국발전의 확고한 의지를 한데 모아, 참사람
열린교육으로 새로운 천년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學校法人 東國學園
理事長 吳綠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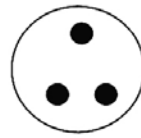


東國大學校
總長 宋錫球

■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TEL : 02)260-3011~2

佛紀 2543年(己卯年) 謹·賀·新·年

시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정일
상무이사 성문

이사 해운 도의 도형 성열 법진
상월 자민 성우 정수 정관
운성 오철 명언
감사 법운 정수

·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 일동 ·

■ 재단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TEL : 02)734-9654~6 / FAX 02)734-3410